

“내년 4월께 DRM 플랫폼 규격 완성”

이 사람

“한국의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 미국·일본·중국·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 사슬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 분야 국제 표준화 기구인 동영상 전문가그룹(MPEG) 의장을 15년째 맡고 있는 레오나르도 캐리글리오네 박사(61)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공간에 맞도록 디지털 콘텐츠 기술과 관련 법규를 동시에 규격화할 대단 위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지난해 7월 일본에서 기술 제안요청서를 발표한 후 평가 및 개발 작업을 수행중”이라며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4월께 ‘국제 상호운용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플랫폼’ 규격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공CD에 세금을 적용하는 문제 등 기존

ICU 석좌교수 레오나르도 캐리글리오네 MPEG 의장

의 전통적인 규격(법)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실제 인터넷의 광역화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부흥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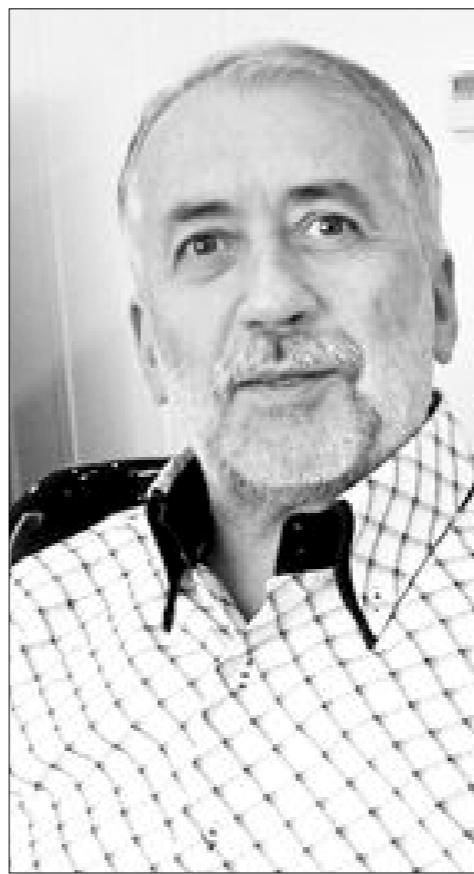
캐리글리오네 박사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IPMP) 기술을 개발하고 법제화하는 문제를 같이 끌고 가려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며 “디지털미디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될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컬러 애플리케이션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MPEG-1에서 CDI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 이 예측이 쉽지 않다”며 “컨버전스 콘텐츠를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계할 상호 운용적인 시큐리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PEG 표준이 파트 21까지 나와 있고 MP3 가 컬러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악 파일에 제작 정보 및 가수 얼굴 화상 등 메타데이터까지 보여줄 수 있는 ‘뮤직 플레이어’가 주목받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캐리글리오네 박사는 “MPEG가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산업의 패션에 맞게 패키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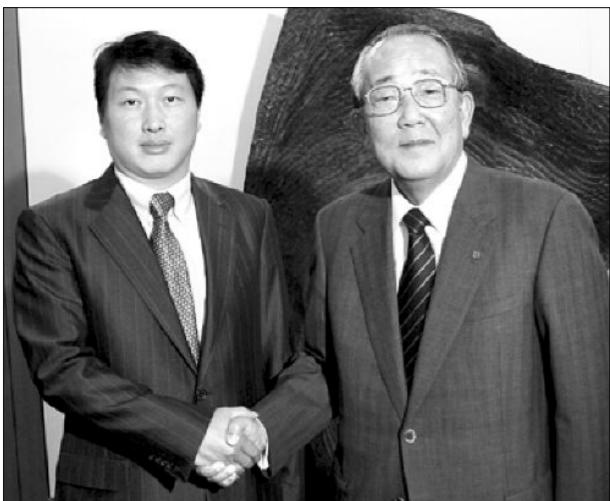
한편 최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석좌교수로 임명된 캐리글리오네 박사는 디지털미디어 분야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이탈리아 튜린 폴리테크니 대학을 나와 일본 도쿄대학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MPEG-1, 2.4의 표준화를 주도했으며 현재 고급 오디오 및 비디오의 검색을 지원하는 MPEG-7과 멀티미디어 프레임인 MPEG-21을 개발중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SK-교세라 ‘정상회담’

최태원·이나모리 회장 “한국 中企 육성” 공감



美 커넥션트 COO에 루이스 브루스터 선임



브로드밴드 통신, 기업 네트워크 및 디지털 홈 분야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 커넥션트 시스템즈는 루이스 브루스터를 최고 운영책임자(COO)로 선임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새로운 CEO로 선임된 드와이트 데커 회장은 “신임 경영진의 임명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시장상황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브루스터는 앞으로 운영, 영업 및 품질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2004년 2월 커넥션트와 글로브랜드 베리타사가 합병할 때까지 커넥션트의 COO직을 맡았었다. 무선 및 네트워크 부품 사업부는 차관 담당 부사장 겸 제너럴 매니저로 임명됐으며 브로드밴드/DSL 액세스 제품 사업부는 아크람 아탈라가 담당하게 됐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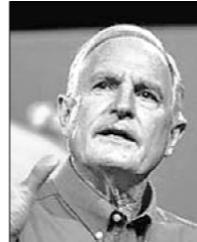


시스코, 북한산 자연보호 활동 전개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는 지난 주말 전 임직원에 약 6시간에 걸쳐 네 방향의 진입로로 나뉘, 북한산을 오르며 등반로 주변의 정화 운동을 펼쳤다.

“印에 수천만달러 투자”

배럿 인텔 CEO



인텔이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에 수천만달러를 추가 투자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EETNews 스가 보도했다.

지난주 인도를 방문했던 인텔의 최고 경영자(CEO) 크레이그 배럿은 현지에서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주가투자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4000만달러를 투자한 인텔은 새로운 주가투자를 통해 센트리노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칩세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노트북 메인보드의 개발, 원도 기반 그래픽 드라이버 설계 및 개발지원 등에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경제 교육용 만화책 펴내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청소년 시장 경제 교육용 만화 ‘재미있는 두루두리 경제’ 10만부를 제작, 전국의 초·중·고교 및 공공도서관 등 1만1000여 곳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세대 정경영 교수가 집필하고 만화가 박철원씨가 그린 이 책은 경제현상과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손영기 경제조사팀장은 “경제 교육용 만화책이 시장경제원리와 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 반기업정서를 순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뉴스피플

중남미국 대사들 초청 세미나



손기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칠레·멕시코·파나마·코스타리카·아르헨티나·페루·엘살바도르·브라질 등 중남미 8개국 주한 대사 및 IT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중남미 IT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직원 대상 제 2차 혁신교육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22~23일 1박 2일간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제 2차 혁신 교육을 실시한다.

과학기자협회장에 피선



이기수 국민일보 전문위원이 제 20대 한국과학기자협회장에 선출됐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기수 전문위원은 유효 회원 280명 중 과반수인 56%의 지지를 얻어 제20대 회장으로 22일 당선됐다.

구글 창업자·CEO, 자사주식 대량 매각



구글의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가 주식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라리

페이지(오른쪽)와 세르게이 브린은 각각 보유 종인 회사주의 20%, 720만주씩을 향후 18개월에 걸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도 보유 주식 중 220만주(15%)를 매각할 계획이다. 페이지와 브린의 주식매각 금액은 각각 12억 달러에 달하게 되며 슈미트의 경우 3억7300만 달러를 챙길 수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인사

◆과학기술부(파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원 권상원 △국무조정실 국무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신승주 △기업성장지원국 판로지원부 배일영

◆기업기술원 △시스템모듈사업단장 김종희 △기술지원본부 기술응용·확산센터장 정영근 △기술지원본부 시뮬레이션 이선” 임종인

부동

◆신원균(前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씨 별세, 신현성(한국투자증권 투신법인부 팀장) 은주(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김정락(한국수력원자력 처분 연구그룹장)씨 빙부상=22일 오전 2시 55분 영동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2)572-0899

▲김치곤(前 2002월드컵조직위 예술총감독)씨 상배, 김태원(동방라이텍) 혜원(대신투자증권)씨 모친상, 박종석(삼성전자) 최장원(SBS 프로덕션)씨 빙모상, 이연수(일보)씨 시모상=22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8

▲이정록(KBS 연구위원) 원영(동아모드 대표) 선우(영일여중 주임교사) 영옥(미국 U.I.C. 연구교수)씨 모친상=22일 오전 8시 서울삼성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6918

▲천명환(하이닉스 회계팀장)씨 모친상=22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02)3010-2238

이전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굿센테크날리지(대표 조해근)가 22일 여의도 한섬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368-8000

이찬승의 ET인물리서

(227)

Susan: Chan, have you checked out sorryeverybody.com?

Chan: The site created by a 20-year-old student, apologizing for the American election results?

Susan: Yes, that's it. There are several pictures of Americans addressing the world, holding up 'sorry' signs.

Chan: I heard. Apparently the site has received over 27 million hits.

Susan: And a number of anti-sorry sites have popped up by Americans who voted for Bush, say ing "we're not sorry."

Chan: No matter what your opinion, it's nice that this forum of expression and discussion is possible with the Internet.

Susan: Chan, 'sorryeverybody.com'이라는 사이트 가봤어?

Chan: 20살 대학생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사과하기

Yes, that's it.

위해 만든 사이트 말하는 거니?

수잔: 응, 바로 그거. 거기 가면 전 세계인을 향해 '미안'이라는 표지를 들고 있는 미국인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

찬: 알아. 그 사이트 방문자가 2700만명이 넘었다더군.

수잔: 또, 부시에 투표한 사람들이 만든 그 사이트에 반대하는 사이트들도 생겨나서, “미안할 것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는군.

찬: 그들의 의견이 무엇이건, 이러한 표현과 의견 나누는 장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건 좋은 일 같아.

Yes, that's it: 그래, 바로 그거야.
apologize for~: ~에 대해 사과하다.
address the world: 전 세계인에게 말하다.
pop up: (갑자기) 나타나다. 일어나다.

<제공: (주)능률교육 http://www.EnglishCare.com>

亞기자협 초대회장에 이상기씨

아시아 언론인들의 모임인 ‘아시아기자협회(AJA, 초대회장 이상기)’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주최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 ‘2004 동아시아기자포럼’에 참석한 중국·일본·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와 미국·러시아·독일·호주 등 세계 20여 개국 60여 명의 언론인 대표들은 ‘아시아기자협회(AJA)’를 만장일치로 출범시키켰다. 동아시아기자포럼 참석자들은 19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을 초대 AJA 회장으로 선출하고 사무총장에는 강석재 기협 국제교류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